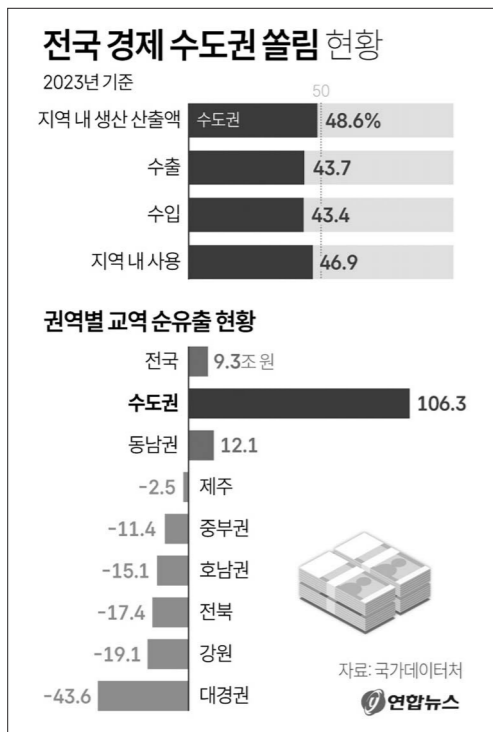


# 호남권 생산 비중 7%대 '전국 최저'...절반이 수도권 쏠림



## ■ 국가데이터처, 지역공급사용표 첫 발표

동남권 16.4%·중부권 14.0%·대경권 8.5% 전남 4.21 등 외부 교역 의존도는 가장 높아 광주 서비스업-전남 광업·제조업 중심 구조

지역 생산·소비·수출입 구조를 보여주는 '지역공급사용표'가 처음 발표된 가운데 호남권의 지역 내 생산 규모 비중이 전국 권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3년 지역공급사용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역 내 생산 산출액은 총 5646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48.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어 동남권(16.4%), 중부권(14.0%), 대경권(8.5%) 순이었으며, 호남권은 7.0%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로는 경기 24.6%, 서울 18.9%, 충남 7.3%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2.1%, 4.9%로

조사됐다. 수출과 수입 역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수도권은 수출액의 43.7%, 수입액의 43.4%를 차지했다. 반면 호남권은 각각 9.0%, 9.8%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 간 거래를 뜻하는 이출·이입 규모에서도 수도권 비중이 40%를 넘어서며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내 사용은 수도권이 46.9%, 소비는 47.8%, 투자 역시 51.8%로 절반 이상이 집중됐다. 광주와 전남은 산업 구조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광주의 경우 서비스업 비중이 47.3%로 가장 높았고, 광업·제조업은 45.7%를 차지해 서비스 산업 중심 구조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광업·제조업 비중이 59.0%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 서비스업 비중은 26.2%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서비스업 비중은 서울이 87.7%로 가장 높았고 관광산업 비중이 큰 제주(71.1%)가 뒤를 이었다. 제조업 비중은 울산(82.8%), 충남(68.0%), 충북(63.3%)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교역 규모에서는 광주가 12조 3000억원, 전남이 2조9000억원 각각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입과 수출 규모가 이출과 수출보다 큰 적자 구조라는 의미다. 반대로 서울은 144조2000억원, 울산은 38조3000억원, 충남은 9조8000억원, 충북은 8조6000억원 규모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106조3000억원이 순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경제가 자립형 구조인지, 외부 교역 의존도가 높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외부경제 개방도는 호남권이 3.85로 전국 권역 가운데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부권(3.61), 동남권(3.39) 등 순이었다. 시도별로 울산(5.20), 충남(4.49), 전남(4.21) 등이 높게 나타났다. 호남권의 주요 수출 생산물은 석유·화학제품이 5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광주는 기계·운송장비·기타 제품 비중이 71.1%로 높았고, 전남은 석유·화학제품 비중이 74.9%에 달했다. 전남의 수출 규모가 광주보다 큰 영향으로 호남권 전체 주요 수출 품목이 석유·화학제품 중심으로 집계됐다. 업체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 광주 도심 3375곳 'AI 실증무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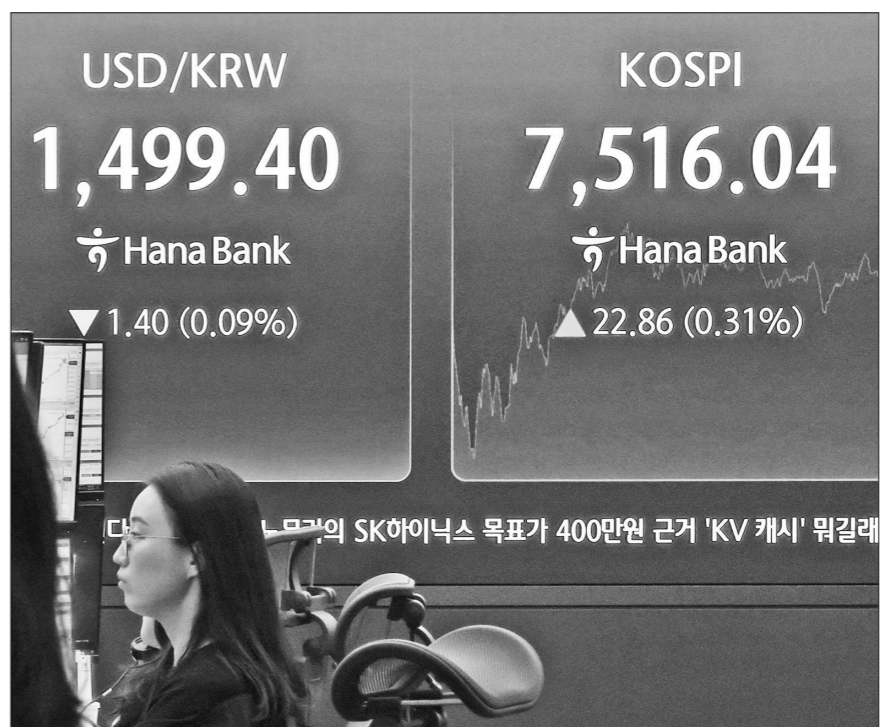
시, 공원·주차장·행정센터 등 실증장소 기업에 대어·상시 접수 기업 위치·규모 무관 참여 가능 상용화·판로 개척 등 지원 연계

광주시가 도심 전역을 인공지능(AI) 기반 혁신기술 실증 공간으로 활용하는 '모두의 AI, 실증도시 광주'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혁신 기술 기업의 실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와 공원, 주차장 등 총 3375개소를 실증 장소로 개방하고 상시 신청을 받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663곳, 서구 815곳, 남구 240곳, 북구 795곳, 광산구 862곳이다.

현재 광주 도심 곳곳에서는 다양한 AI 기반 실증사업이 진행 중이다. 북구 서림초등학교 정·후문에는 AI 기반 감지센서를 통해 차량과 보행자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어린이 등하교길 AI 안전지킴이'가 운영되고 있다. 해당 실증을 진행한 기업은 서림초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북미 시장 진출에도 성공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또 광산구 쌍암공원 자전거마을 시범지구에서는 자전거와 차량, 보행자 간 충돌 위험을 예측해 경고하는 'AI 안전관리 시

스템'이 시민 안전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오는 6월 기존 편도 구간 중심의 운영 범위를 양복 구간까지 확대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실증 장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AI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실증 이후에는 예로사항 해소와 판로 개척을 위해 기존 지원사업과 연계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AI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지역과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광주시 기업실증원스튜디오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실증 장소와 진행 중인 사업 현황 등을 공개해 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혁신 기술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광주·전남 통합 이후에는 조광역

단위 실증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시는 실증 자원을 추가 확보하고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해 광역 단위 AI 실증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광주에서는 AI 기반 3D 동화체험관, 디지털 차매예방 뇌건강 놀이터, 경도 인지장애(MCI) 조기 선별 시스템, 고령자 적응형 스마트시트, 키오스크형 디지털 인지건강 지원시스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그늘 목소리', 정신건강 개선 실증, 실시간 열차 도착정보 안내, 탄소중립형 스마트엘터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AI 실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손두영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도심 전체를 실증 현장으로 활용하는 기업에는 기술 상용화 기회를, 시민에게는 혁신 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AI 문화를 확산해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송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0.5원 내린 1500원에, 코스피는 22.86p 오른 7516.04에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 코스피, 개인·기관 매수에 7200선 붕괴 후 반등

장중 4% 넘게 급락 2거래일 연속 매도사이드카 발동

코스피가 18일 장 초반 7200선까지 내려주며 급락했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9.89p(0.67%) 내린 7443.29로 출발해 22.86p(0.31%) 오른 7516.04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한때 4.68% 떨어지며 7142.71까지 밀렸다. 이에 오전 9시 19분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은 지난 15일에 이어 2거래일 연속이다.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 200선 밑 지수가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1, 2위인 삼성전자 이후 낙폭을 완화하며 상승전환해 7636.20까지 올랐다. 장중 최고치와 최저치 변동폭은

493.49p에 달해, 지난 15일에 이어 큰 반등세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과 개인이 각각 1조3912억원, 2조2086억원 순매수하고 외국인도 3조6515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각각 순매수와 순매도 우위를 보이며 수급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증시는 지난주 말 뉴욕증시 3대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은 지난 15일에 이어 2거래일 연속이다.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 200선 밑 지수가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3.88%, 1.15%씩 오르며 각각 28만1000원, 184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업체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 시장 변동성 대응 투자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광주은행, 이광수 대표 초청 PB고객 자산 관리 세미나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최근 본점 3층 상생마루에서 PB고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미나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객들에게 시장 흐름에 대한 인사이트와 실질적인 자산관리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독립 리서치 법인 '광수내부덕방' 이광수 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광주은행 PB고객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했다. 이광수 대표는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과 리스크 관리 방



광주은행은 최근 본점 3층 상생마루에서 PB고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안, 장기적 관점의 자산배분 중요성 등을 설명했다. 또한 단기 시장 이슈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과 안정적인 자산관리 방향을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 관심을 받았다.

광주은행은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PrimePB센터와 봉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과 안정적인 자산관리 방향을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 관심을 받았다.

하고 있다. 특히 고객의 금융 니즈에 맞춘 1대1 맞춤형 상담은 물론 투자·세무·부동산·연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 WM사업부의 전문 컨설팅 조직인 'WM플러스'와 연금사업부 소속 'The 헤안(慧眼)' 조직을 중심으로 고객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WM플러스'는 투자·부동산·세무 분야 전문가 협업을 통해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The 헤안(慧眼)'은 연금 포트폴리오 설계 및 상담을 통해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자산 관리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 정금옥 광주은행 WM사업부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신뢰도 높은 시장 정보와 전문적인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미나와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혼농임업 결합 해외 탄소감축 고도화해야"

KREI, 'REDD+ 전략' 보고서...조림 중심 장기방안 제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KREI)은 'REDD+'를 활용한 해외 산림 탄소 감축 전략'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해외 산림을 활용한 탄소감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해외 산림 기반 탄소감축 수단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존 REDD+ 사업의 한계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했다. REDD+는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방지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국제협력 메커니즘이지만, 실제 사업에서는 제도적 불안정, 지역사회 참여 부족, 경제적 지속성 한계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로 성과가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혼농임업(Agroforestry)'을 제시했다. 혼농임업은 산림과 농업을 결

합한 토지이용 방식으로, 탄소흡수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생태계 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전 세계 140개 REDD+ 사업을 대상으로 한 계약 분석 결과, 단순한 재정투입보다 지역사회 참여, 토지권 체계, 교육 및 기술 지원 등 제도·사회적 요인이 사업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됐다. 또한 혼농임업을 결합한 경우, 탄소 감축량 자체를 늘리기보다는 사업 성과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리스크 완충 장치'로 기능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라오스 사례를 활용한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30년 기준 혼농임업 모델이 경제적

(NPV)과 안정성 측면에서 단순 조림 방식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적으로는 조림 중심 전략과 병행하는 '이원적 포트폴리오'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됐다. 향후 REDD+ 사업을 단순 산림보전 사업이 아닌, 토지권 개선, 거버넌스 강화, 생계 다변화 등을 포함하는 '구조개혁형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의 해외산림 탄소감축 전략은 단·중기적으로 혼농임업 기반 REDD+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조림형 사업을 병행하는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주·조원현 기자 pose007@gwangnam.co.kr

## 광주신보-카카오뱅크, 소상공인 특별보증 시행

희망통장 특별보증·협약보증 등

지 연장할 수 있다. 또 카카오뱅크의 '특별출연'을 통한 협약보증도 함께 추진된다. 카카오뱅크가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카카오뱅크와 협력해 광주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보증은 고유가·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희망통장 특별보증'은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운영돼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자금을 인출하고 상환한 금액만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광주지역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까

지 연장할 수 있다. 또 카카오뱅크의 '특별출연'을 통한 협약보증도 함께 추진된다. 카카오뱅크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출연해 총 15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하 특별보증은 고유가·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희망통장 특별보증'은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운영돼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자금을 인출하고 상환한 금액만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광주지역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까